

치매소설에 나타난 ‘근대적 개인’의 위기와 서술적 정체성*

최 윤 영**

[초 록]

최근 문학에서 치매 현상을 다루거나 치매인이 등장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뇌과학을 중심으로 법학, 보건학을 위시한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치매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나, 인문학이나 문학연구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이제까지 나온 드문 문학 연구는 치매소설들의 유형학을 다루고 있으며 치매와 인간적 삶, 그리고 글쓰기의 관계나 의미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학이 치매 현상을 다룰 때 가장 큰 차이는 치매인을 환자로서만이 아니라 삶 속의 개인으로 총체적으로 또한 전일적으로 서술하는 데 있다. 즉 그를 삶 전체 속의 인간으로서 서술하고 있으며, 서술시간도 환자 시기뿐 아니라 전 생애로 확장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조명하고 있다.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6983).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교수

주제어: 치매, 삶의 서사, 근대적 개인, 정체성, 기억과 망각

Demenz, Lebensnarrative, modernes Individuum, Identität, Erinnern und Vergessen

이 글은 문학에서의 치매 현상을 다루되 특히 소설 장르의 특성과 결부시켜 다룬다. 이때 주제와 소재로서의 치매 현상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소설 형식과 그 바탕에 놓인 삶과 서사와의 기본 관계를 같이 고찰한다. 소설은 주지하다시피 ‘근대적 개인’의 형성과 더불어 부상한 문학 장르이다. 근대 이후 인간과 삶, 그리고 글쓰기 담론이 주로 기억과 관련된 이성적 능력과 경험의 축적,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개인의 완성이라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서술적 정체성’을 구성하였다면 기억과 인지 능력의 점차적 상실과 망각, 소멸이라는 특징을 갖는 치매소설은 이러한 근대적 인간(성) 담론과 그에 바탕을 둔 소설 담론을 재검점할 것을 요구한다.

이 글은 이러한 치매, 근대적 인간, 그리고 소설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이론적 기초로 인문과학에서의 기억과 망각에 대한 이론들을 짧게 살펴본다. 이후 기존의 치매소설의 예를 살펴보면서 노년 치매와 기억의 쇠퇴, 퇴화, 망각이 실제 개인의 구체적 주관적 삶 속에서 어떻게 서술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소설 장르의 기본적 담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변화와 수정을 요구하는지를 살펴본다.

1. 노망과 치매

한국사회는 이제 노령화사회를 지나 노령사회로 치닫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건강한 노년기인 ‘제3의 인생’에 이어 쇠약해지는 노년기인 ‘제4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21세기는 치매의 세기라 불리우고 있다.¹⁾

치매를 뜻하는 라틴어 ‘dementia’는 어원상으로는 “기억의 부재”를 뜻하며 프랑스 의사 에스키롤이 1838년에 의학적으로 정의를 내린 이후 학

1) 치매는 알츠하이머, 혈관성, 파킨슨병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노령이 아니더라도 치매에 걸리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많은 사례이자 보편적 사례라 할 ‘노인성 치매’를 중심으로 다룬다.

술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 ‘치매’(癡呆)는 보편적 용어로 자리매김하였다. ‘치매’는 이전의 ‘노망’(老妄)이나 ‘망령’(妄靈) 같은 용어들처럼 “노인의 기억 퇴행 현상, 인지 능력 상실, 기억의 망각 현상의 증가”를 지칭하지만 무엇보다도 현대의 사회화되고 의료화된 차별적 질병 개념이다.²⁾ 과거의 용어들이 노령에 이른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면, 치매라는 현대의 용어는 그것이 자연과학적 질병 담론으로 구성되었으며 담론형성의 주도권이 의학으로 넘어갔음을 의미한다. 의학은 치매 중 가장 사례가 많은 알츠하이머 병을 뇌에 플라크 엉킴이 쌓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이 축적 과정을 차단하는 기제를 연구하고 있고 미래에는 치매 진단 키트, 혹은 치매 예방주사까지 예고하고 있다. 치매 담론은 의학 담론에 바탕을 두고 생물학, 간호학, 법학, 사회학, 보건학이 개입한 사회 전체의 질병, 치료, 돌봄 담론으로 확장되고 있다.³⁾ 치매는 이렇듯 학제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활발하게 연구대상이 되고 있지만 문학에서는 아직까지 주된 관심사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⁴⁾

문학이 치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치매가 사회 전체가 개입하는 보편 담론이 되고 있지만 이

- 2) 최근에는 ‘인지증’(認知症)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용어들의 구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오가 겐(2013), 『치매노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안상현역, 서울: 윤출판, p. 19 이하 참조.
- 3) 치매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더불어 치매인의 돌봄과 수발 담론은 배경이 가정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옮겨져 보건복지학과 재정학 문제로 재구성되었다. 법학은 주로 인지 능력이 약화된 치매 환자의 법적 주체성, 법적 후견인 문제를 다룬다. 더불어 치매는 단순히 망각뿐 아니라 인간의 감성, 지성, 인지 능력과 관련된 학제간 담론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까지 개입하여 치매 환자의 보조 로봇의 개발과 더불어 인간 인지에 대한 지식을 기계의 인지와 기억, 망각문제에 응용하여 포스트휴먼을 구성하는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 4)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다음의 논문이 이러한 치매소설과 재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Yun-Young Choi (2018), Demenz als Lebensnarrative, in: Tagungsband der Asiatischen Germanistentagung (to be appear).

과정에서 치매인을 한 개인으로, 치매인의 삶을 그의 전체 삶에서 바라보는 통합적이며 전일적 관점은 결여되어있다. 자연과학 중심의 치매 담론은 뇌 담론, 단백질 담론, 상실 및 망각 담론 등의 질병과 퇴화 담론으로 전개되고 생물학 중심주의적이고 기능주의적이며 예방-질병-치료 도식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매인에 대한 주관적이며 개별적이며 그리고 삶과 관련된 통합적인 통찰이 요구되는데 이것은 바로 인문학, 특히 문학의 본령에 속한다. 둘째 치매에 대한 문학연구가 필요한 것은 최근 들어 문학작품에서 주인공이나 주변 인물로 치매인이 등장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고 주제로서, 소재로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이 현상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되고 있다.⁵⁾ 그렇다면 문학 속에서 전달되는 치매인의 삶은 기존의 다른 학문에서의 치매 서술과 어떻게 다른가? 또한 치매소설은 문학, 특히 소설 장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라는 질문이 등장하게 되며 이것이 이 글의 주요 관심사이다.

2. 기억과 망각 그리고 삶의 서사

이미 고대로부터 문학이나 철학, 사학 등 인문과학에서는 ‘기억’을 형이상학적으로, 이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중시해왔다.⁶⁾ 기억은 지식

5) 무엇보다도 연명 치료 거부 증서에 노인성 치매를 표기하겠다는 사람이 일본에서는 75%에 육박하는데 치매의 공포와 불안은 치매인이 독립성, 자립성을 잃고 주위 사람이나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데에서 온다고 이유를 말하고 있다. 오가 겐(2013), p. 17.

6) 국내의 주목할 만한 치매에 대한 학제간 연구로 최근 포항공대에서 다학제적 포럼의 형식으로 진행된 기억연구가 있는데 결과는 『기억하는 인간 호모 메모리스』(2015)라는 책으로 정리되었다. 철학, 사회학, 역사학, 생물학, 공학 등에서 17편의 논문으로 정리된 이 학제간 연구는 문학, 사학의 경우에는 아직 전통적인 기억과

과 역사, 그리고 문화나 문명의 바탕으로서 이해되었고 큰 흐름은 기억과 망각의 이분법에 기인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방점은 기억에 놓여있었다. 즉 기억은 좋은 덕(德, virtue)으로, 망각은 피하고 극복해야 할 나쁜 병(病, disease)으로 인식되었다.⁷⁾ 플라톤의 경우도 원천적으로 기억을 인식과 연결시키고 있어, 이데아론과의 연관성 속에서 “인식한다는 것은 다시 기억한다는 것, 즉 ‘상기’(anamnesis)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⁸⁾ 최근에 일어난 기억 연구의 붐은 인문학 전체에 파급되었다. 역사학에서도 이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거대담론이나 사실에 입각한 실증주의적 주류 흐름에 ‘기억’을 화두로 한 새로운 조류는 개인이나 사회를 역사를 바라보는 주체로 고려하여 큰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 독일 어권 문화학에서 초점의 중심이었던 아스만 부부의 커뮤니케이션 기억 대 문화적 기억, 개인적 기억 대 집단적 기억도 이러한 흐름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학제적 기억연구는 기억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심층적으로 세분화해서 연구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때 기억 자체의 역동성을 강조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미 니체가 이에 대한 전초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홍사현은 니체의 「반시대적 고찰 II. 삶에 대한 역사의 공과」를 바탕으로 그의 업적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는데 이는 현대의 기억연구, 뇌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첫 번째는 니체가 기억의 역동적인 힘을 강조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 후대의 기억이론에 자극을 주었다는 것이다.

망각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학제간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들 사이의 소통이나 연결점은 그다지 강하지 않다. 이진우·김민정(2014), 『호모 메모리스』, 서울: 책세상.

7) 이진우·김민정(2014), p. 19.

8) 플라톤은 인간의 핵심능력으로 기억을 규정하고 플라톤은 지각-기억-경험-지식으로서 지식의 생산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원초적 기억, 즉 이데아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각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영혼이 이승에서 재생하려면 망각의 강물을 마셔야 한다는 에피소드에서 보듯, 망각을 기억에 앞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진우·김민정(2014), p. 26 이하 참조.

이때 단순히 쌓여있던 과거를 상기하는 기술(ars)이 아니라 기억 자체를 추동하는 역동적 힘(vis)이나 살아있는 운동으로서 기억을 설명하는 연구자들의 입장이 기억이론의 역사에서 특히 중요한 전환을 이루고 있는데, 이 경우 니체가 그 ‘후원자’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⁹⁾

두 번째로는 니체의 망각에 대한 적극적인 재조명을 들 수 있다. 니체는 당대의 상황을 비판하면서 역사의 과잉, 기억의 비대에 대한 해악을 논의한다.

삶은 역사 병에 괴로워하고 있다. 역사의 과잉은 삶의 조형력을 공격했고, 삶은 과거를 마치 영양이 풍부한 식량처럼 사용하는 법을 잊어버렸다.¹⁰⁾

니체는 이때 역사라는 병을 고칠 수 있는 해독제로 “비역사적인 것”과 “초역사적인 것”을 들고 전자를 “잊을 수 있고 제한된 지평 안에 자신을 가둘 수 있는 기술과 힘”이라고 규정하고 후자를 “시선을 생성으로부터 현존재에 영원성과 동일성을 부여하는 것, 즉 예술과 종교로 돌릴 수 있는 권력”이라고 규정한다.¹¹⁾ 그는 망각을 삶의 원초적 힘으로 받아들이고 기억과 망각의 균형에 대하여 논의할 때에도 망각을 역사보다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강조한다. 니체는 마치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시스적인 것의 관계에서처럼 기억과 망각의 관계도 계보학적으로 고찰하고 있다.¹²⁾

9) 홍사현(2015), 「망각으로부터의 기억의 발생. 니체의 기억 개념 연구」, 『철학논집』 42(2015), p. 327.

10) 프리드리히 니체(2005), 「반시대적고찰 II. 삶에 대한 역사의 공과」, 『니체전집』 2, 이진우 역, 서울: 책세상, p. 383.

11) 프리드리히 니체(2005), p. 384.

12) 이진우·김민정(2014), p. 29. 이하와 홍사현, 「망각으로부터의 기억의 발생. 니체의 기억 개념 연구」, 『철학논집』 42(2015), pp. 325-363 참조.

망각은 기억의 상실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것으로 조명되지 않고 기억 발생의 필연적인 과정이자 문화와 역사를 창조하는 적극적 힘으로 부각된다. 과거가 현재를 덮는 일이 없기 위해서 또한 무엇보다도 새로운 것을 생성하기 위하여 과거는 잊혀져야 한다. 치매소설에서는 망각의 힘과 기술이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니체의 망각 담론과는 큰 차이가 있지만, 시선을 삶의 현재 순간으로 돌리고 망각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니체의 논의는 시사하는 점이 많다.¹³⁾

신경생물학자 이스쿠이에르두도 최근 그의 저서 『망각의 기술』에서 망각이 기억의 일부이며 선택적이고 의도적으로 일어남을 밝힌다.¹⁴⁾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망각하도록 학습하거나 선택하는 것도 우리 자신이고, 치매 환자들이 치매 진단과 더불어 삶이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실제적 예로서 환자의 뇌 속에 완전히 망가지거나 상실된 기억의 홍수 속에 아직 온전한 부분 혹은 잘 보존된 “기억의 섬”이 존재하는 일이 자주 목격된다고 말한다.¹⁵⁾ 이러한 부분은 망각 속에서도 그의 과거 및 기억과 연결선을 맺어준다.

3. 치매와 문학적 글쓰기

위에서 본 것처럼 최근 망각은 기억과의 관계 속에서 상보적으로, 보완적으로, 관계 중심으로 고찰되어왔고 또한 인간 삶에서 행하는 다양한 기능과 의미, 관계가 연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자연과학 혹은 사회과

13) 그 외에도 니체는 장년과 노년과는 거리를 두며 특히 비역사적인 것을 교양과 관련을 시켜 논의하면서 주로 청년의 과제로 언급한다.

14) 이반 이스쿠이에르두(2015). 『망각의 기술』, 김영선 역, 서울: 푸른 숲, p. 32.

15) 이반 이스쿠이에르두(2015), p. 189.

학의 질병서사가 질병과 치유 사이, 정상과 비정상, 포함과 배제 사이에서 전개된다면 문학은 치매 문제에 현상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접근하며 이때 초점은 치매인 개인에게 놓이는데 이 개인의 인지, 감정, 이성능력의 변화와 상실을 외면과 내면에서 상세하게 서술한다. 동시에 그의 주변 환경 속에서 변화하는 그의 입지를 서술한다.

치매소설의 분석에 흥미로운 단초를 주는 이론으로 폴 리콥르의 철학적 서사 이론을 들 수 있다.¹⁶⁾ 리콥르는 그의 저서 『시간과 이야기 3』에서 ‘정체성’(Identität) 개념을 라틴어 “동일하다”(idem)와 “자기 자신”(ipse)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즉 다시 말해서 “같다”는 뜻과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구분하면서 인간 삶의 정체성을 후자와 결부시켜 해석한다.

“누가?”라는 물음에 답한다는 것은, 한나 아렌트가 역설했듯이,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야기된 스토리는 행동의 누구를 말해준다. ‘누구’의 정체성은 따라서 서술적 정체성인 것이다. 서술 행위의 도움 없이는 인격적 정체성의 문제는 사실상 해결책 없는 이율배반에 빠지고 만다. 즉 그 자신과 동일한 주체를 그 다양한 상태에서 제시하거나, 흠과 니체의 뒤를 이어 그러한 동일한 주체는 실체론적 환상으로 그것을 제거하고 나면 순전히 잡다한 인식, 정서, 의욕들밖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동일하다 idem는 뜻으로 이해된 정체성 대신에, 자기 자신 ipse이라는 뜻으로 정체성을 이해하게 되면, 딜레마는 사라진다.¹⁷⁾

16) 김선하(2007), 『리콥르의 주체와 이야기』, p. 191.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미메시스” 개념을 원용하면서 한 인물의 정체성 구성의 변증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줄거리 덕분에 사건의 목적과 원인과 우연들은 전체적이고 완전한 어떤 행동의 시간적 통일성 아래 통합된다.”

17) 폴 리콥르(2015), 『시간과 이야기 3』, 김한식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p. 471.

이렇게 시간의 차원과 시간에 따른 변화와 지속가능성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그는 하이데거의 계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삶의 이야기를 정체성과 결부시켰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 리피르는 이때 형식적 정체성과 대비되는 “서술적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도입하는데, 이에 따르면 자기 정체성이란 “이야기로 표현된 자아 형상”이라는 것이다.¹⁸⁾ 이러한 리피르의 정체성 개념이 가진 장점은 바로 변화와 변화 가능성을 삶의 일관성과 개인의 정체성 담론 안에 포함 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즉 이를 치매소설에 적용하면 치매인의 정체성을 그의 현재적 상태에서뿐만 아니라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복합체 속에서 파악되는 지속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치매 발병 이후의 상실과 쇠퇴를 전 생애와의 연결 속에서 고찰하는 문학의 특징도 설명할 수 있다. 치매인으로서 그의 변화되는 모습도 그의 삶의 이야기 안에 서술적 정체성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이야기되는 것이다. 치매인을 다룬 문학은 바로 이러한 ‘서술적 정체성’을 제공한다는 데에서 환자의 현재 상태에만 초점을 맞춘 의료기록이나 환자 수기와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인물 스스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에 희망을 품는다는 일반적인 삶의 스토리 도식은 수정이 필요하지만, — 작가든, 화자든 — 치매인의 전체 삶을 이야기하여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기본 도식은 치매소설을 분석할 때 유용하다. 즉 다시 말해서 인물은 치매에 걸린 시기뿐 아니라 그의 전 생애를 통해 비추어지고 회상되며 복수의 인간관계 속에서 서술된다.¹⁹⁾ 이러한 통합 속에서 치매인은 그의 바램대로 ‘지금-현재 상

18) 물론 그가 사용하는 서술적 정체성 용어는 실제 주인공과 이야기 속의 주인공의 동일성을 가정하고 있고 자서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소설의 정체성은 특수한 사례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Klein, Christian (2011), “Erzählen und personale Identität”, Martinez, Wolfgang (Hg.)(2011), Handbuch Erzählliteratur, Stuttgart: Metzler, pp. 83-89 참조.

19) 문학에서 다루는 치매는 한편으로는 문학의 소재, 주제, 그리고 —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말하는 “fabel”에 대립되는 — “sujet”로서 중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치

태 이상'의 존재로 묘사된다.

알츠하이머병 진단은 주홍 글씨와 다를 바 없습니다. 치매 환자, 그것이 지금의 제 이름입니다. 앞으로 한동안 제 자신을 그렇게 정의할 것이며 다른 이들도 계속해서 저를 그렇게 정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 제가 하는 행동, 제가 기억하는 것이 저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²⁰⁾

3.1. 한국문학 속의 노망과 치매

치매는 이제까지 한국문학에서는 주로 '노망'이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과거에는 현대와 달리 고령인 인물들이 많지 않았고 때문에 노망도 보편적이거나 일반적 주제로 부각되지 않았다. 기존의 한국문학 연구에서는 여성의 노망이 남성보다 보다 더 많이 다루어졌으며, 오정희나 박완서, 신경숙의 문학을 대상으로 여성의 노망과 노년 현상을 분석한 연구가 다수 나와 있다.²¹⁾ 여성 작가들에 의해 여성 인물들의 치매가 많이 다루어지는 것은 글쓰기의 윤리적, 도덕적 기능과 관련이 있다. 즉 다시 말해 치매에 걸린 여성 인물들을 문학화를 통해 다시금 개인으로 구제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박완서의 「환각의 나비」를 치매를 다룬 단편소설로 분석하면서 전홍남은 치매를 가벼움과 연관시킨다. 이 가벼움은 “살아온 무게나 잔재를 완전히 털어버린 그 가벼움”으로서

매의 본질적 특성상 문학의 형식 자체를 문제시한다. 즉 문학은 치매현상의 증거자료로서 효용성을 갖거나 혹은 기존의 사회과학적, 자연과학적, 의학 담론으로 완전하게 해석이 되지 않는다.

20) 리사 제노바(2007), 『스틸 앨리스』, 민승남 역, 서울: 세계사, p. 355.

21) 전홍남(2010), 「박완서 노년소설의 시학과 문학적 함의」, 『國語文學』 49, pp. 111-130. 2008; 김윤정(2015), 「박완서 노년소설에 나타나는 질병의 의미」, 『한국문학논총』 72, pp. 293-332 참조.

자유로움으로 해석된다.²²⁾ 노망은 그러한 자유가 허용되는 가상적 서술의 공간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노년 연구는 최근에 활발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 현대 노년소설연구』는 한국 작가들의 노년에 대한 다양한 서술양상과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석들은 정신적 육체적 노쇠, 죽음, 소외, 가난 등 다양한 노년의 현상들을 같이 다루기 때문에, 치매의 문제는 국지적인 분석에 제한되고 있고 초점화되지 못하고 있다.

3.2. 개인의 전기와 치매, 역사와 망각

독일에서도 치매는 오랫동안 함구되다가 2010년대에 와서야 사회문제로서 공개적으로 또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 물꼬를 튼 텍스트가 바로 튀빙엔의 문필가 발터 엔스의 아들 틸만 엔스가 쓴 『치매, 내 아버지와의 이별』(*Demenz. Abschied von meinem Vater*, 2009)이다.²³⁾ 이 책은 유명 작가이자 연설가, 학자이자 교수였던 아버지가 기억과 언어를 상실하는 과정을 전기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존경받던 아버지의 치매의 진행 과정은 아들의 시각에서 고통 속에서 관찰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그의 발병 사실과 진행 과정을 대중들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한다. ‘고통’은 아들 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해당된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언어의 거장이었던 아버지는, 치매에 걸리기 전에 「인간답게 죽는 짓」이라는 제목을 붙인 글에서 치매와 안락사라는 주제를 스스로 다룬 바가 있다. 즉 치매는 바로 “나를 잃어버리는 질병”으로 그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는 역동적인 “나 ich”에서 자발적 의지가 없는 수동적 “그것 es”으로 변모한 상태로 사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명하고 그러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약함 Schwäche”라고 부른 “자기 스스로 정한 죽음”

22) 전홍남(2011), 『한국 현대 노년소설연구』, 서울: 집문당, p. 114.

23) Jens Tilman (2009), *Demenz*, München: Güterslocher Verlagshaus.

이 인간답게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스스로 정한 삶을 산 연후에, 아득하게만 나를 기억시키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무엇으로서의 삶을 사는 대신 스스로 정한 죽음을 죽으면 안 될까? 그러면 이 이미지가 남아 후손들에게는 그 인상들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이지 “그것”이 아니며, 생각하는 존재이지 움짤거리는 근육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이다.²⁴⁾

그러나 그에게 2003년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이후 사망할 때까지 10여 년 동안 부인이 간병하는 가운데 삶의 활기를 잃어가고 자주 우울증에 걸리면서 사회와 서서히 격리된다. 아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삶을 기록하는데 중간중간 이탤릭체로 아버지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텍스트는 서술자의 관찰과 발터 옌스 자신의 말로 합쳐서 구성된다.

옌스의 텍스트는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진단과 더불어 찾아온 충격적 단절의 시기와 이후의 점진적인 악화 과정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여타 치매소설과 구조상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삶에 대한 기록이면서도 동시에 과거의 역사와 결부됨으로써 이 텍스트는 드물게 공동체와 정치적 관계 속에서 논의되었다. 옌스의 치매가 발병한 시기에 『독문학자 사전』 편찬 작업이 행해졌고 이때 처음으로 발터 옌스가 과거에 나치 당원이었음이 밝혀졌던 것이다. 치매 발병 초기에는 작가 스스로 나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정 연령이 되면 당원으로 자동으로 가입이 되었으며 자신은 당비를 낸 적도 없고 스스로 당원 가입서에 서명한 적도 없다고 과거를 부인하며 자신을 옹호하였다. 그러나 옌스의 과거는 계속적으로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었다. 그의 당원 지원서와 학창시절의 반유대적 성향의 에세이가 발견되고, 라이히 라니츠키를 위시한 많은 작가와 평론가들이 그의 치매와 망각 그리고 과거

24) Jens Tilman (2009), p. 4.

은폐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였다. 그러나 엔스의 치매가 악화됨에 따라 이 문제는 더 이상 본인과는 다룰 수가 없게 되었다. “과거를 기억할 수 없다”는 그의 치매는 한편으로는 개인의 질병 상태를 가리키지만 다른 한편으로 나치 과거에 대한 문제와 얽혀 과거와의 대결에 대한 회피로서, 의도적 망각으로, 의지 포기로서 의심받고 비난을 받았다.²⁵⁾ 즉 치매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과거사와 결부된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문제와 결부되어 논의되었다.

이 책의 의의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치매의 커밍아웃에 있다. 출판 이후 발터 엔스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관음증’이라는 비난도 있었고 또한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한 “문학적 부친살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²⁶⁾ 또한 오랫동안 치매는 감추어야 할 개인의 부끄러운 병으로 여겨졌었기 때문에 이러한 치매의 ‘드러냄’은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가족의 수치심과 결부된 문제로 간주 되었다. 치매에 관한 본격 문학이나 논의가 없었던 데에는 이러한 도덕적 거부감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3.3. 소설 속의 치매

엔스의 책이 나온 이후에는 독일 사회에서 치매를 주제나 소재로 다룬 문학이 봇물 터지듯 많이 쏟아져 나왔다. 이 치매소설들의 특징은 한 인

25) Ulrike Vedder (2012), Erzählen vom Zerfall: Alzheimer und Demenz in der Gegenwarts- literatur. In: Zeitschrift für Germanistik 22 H. 2, p. 274 참조.

26) 심리학자 미처리히는 틸 엔스가 같은 직업을 가졌던 경쟁자이자 라이벌이었던 아버지에게 느꼈던 양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부친 살해”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책은 전반적으로 발터 엔스의 고통과 아들의 고통을 다루어 대중 인기에 영합했던 텍스트로 보기는 어렵다. 2009년 3월 5일, http://www.berlinerliteraturkritik.de/detailseite/artikel/jens-buch-literarischer-vatermord.html?tx_ttnews%5BbackPid%5D=34&cHash=d4230bfd13.

간의 기억과 인지능력의 변화에 대한 관찰이자 서술이라는 데 있고 이때 치매를 단순히 상실이나 퇴화의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 비록 고통 속이라도 — 삶의 서사로 본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를 개인과 가족,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관찰하는 인간(학)적 서사가 문제시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에 대한 관찰과 묘사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치매인의 삶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다룬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치매소설의 특징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치매소설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상인의 삶에서 차츰 치매환자의 삶으로 이행됨을 그리고 있으며 특히 치매로 진단을 받는 순간은 모두에게 큰 삶의 충격으로 묘사되며 인생에서의 하나의 문턱, 전환점을 형성한다. 치매인은 다른 질병과 달리 증상의 악화에 따라 자기 혼자 삶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소설은 간병하며 관찰하는 부부나 가족에 의한 부부서사, 가족서사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3인칭 시점으로 많이 쓰여진다.²⁷⁾ 대체로 치매를 다룬 서사는 회복이 어렵고 망각, 사라짐, 소멸로 끝이 나서 여타 질병 서사와 패러다임이 다름을 보여준다.

치매를 다룬 최근의 대표작으로 오스트리아 작가 아르노 가이저의 소설 『망명 중의 임금님』(Der alte König in seinem Exil, 2011)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여러 측면에서 엔스의 『치매』와 대조가 되고 있다. 가이저도 엔스와 마찬가지로 실제의 자신의 아버지를 돌본 자전적 경험을 많이 담아 소설을 쓰고 있다. ‘고통스러운 관찰자’ 엔스와 달리 가이저의 화자는 언어를 상실해가는 주인공에게 ‘다가가는 번역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²⁸⁾ 소설 속에서도 작가로 등장하는 화자는 처음에는 아버지 삶 속에

27) 드물게 1인칭 치매소설로 『스틸 앨리스』를 들 수 있다. 이 소설은 또한 치매와 관련된 최근 미국의 첨단 치료법까지 모두 담아 흥미롭다. 예를 들어 조발성 치매의 유전 가능성 이야기도 다루어지고 있는데 자녀 가운데 유전자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갈리면서 그들의 미래가 현재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28) Yun-Young Choi (2018) 3장 참조.

찾아온 망각과 그로 인한 혼란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실망하다가 점차 이것이 병에 기인함을 알게 되고 그의 상태를 받아들이면서 간병을 하는 와중에 아버지 삶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또한 과거를 추적한다. “우리가 바랬던 것이 무산되었을 때,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사는 것이다.”²⁹⁾ 그리고 아버지를 현재의 치매 상태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유년 시절, 2차 세계대전 참전, 전쟁 포로 시절, 탈출기, 결혼과 가족 형성기, 그리고 또한 가족 해체기 속에서 새롭게 관찰하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과거 추적과 글쓰기 과정을 통해서 서술자는 이제까지 몰랐던 “아버지의 출신, 아버지의 좌절, 아버지의 두려움과 희망”에 조금씩 다가간다.³⁰⁾ 현재의 서사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면서 “삶이 아버지에게서 한 방울 한 방울 새어나가는” 변화와 아버지의 사회관계, 가족관계의 변화 속에서 서술된다. 특징적인 것은 옌스에게서 보다 더욱 뚜렷하게 서술이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즉 가이거는 관찰자 서사와 환자 서사를 서로 번갈아 가며 등장시켜 이의 통합 속에서 한 인격체에 대한 전체 서사를 구성해 나간다.³¹⁾ 한편으로는 보통의 소설에서처럼 아들이 아버지의 삶에 대해 관찰하고 또한 자신의 회상이나 아버지의 과거 기록 등을 통해 과거를 재구성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 장의 시작 부분에 한쪽 혹은 두 쪽 분량으로 아버지와의 대화를 현재형으로 옮겨 놓아 변화 가운데 아직 파편적으로 남아있는, 아버지의 지속되는 정체성을 그려낸다. 즉 이 소설은 이러한 이중 구성을 통하여 이스쿠이레르두가 말한 아직 남아있는 온존한 부분인 “기억의 섬”을 보여준다. 이러한 장면들은 과거의 아버지를 상기시키며 동시에 아버지 자신의 현재 상태를 보여준다.

29) Arno Geiger (2011), *Der alte König in seinem Exil*, München: dtv, p. 179.

30) Arno Geiger (2011), p. 165.

31) 동시에 대한 내러티브를 전개하는데 이성과 언어를 잃어가면서도 자신의 삶, 정체성, 권리에 대해 고민하고 이성보다는 몸이나 감정으로 소통하게 됨을 보여준다. 즉 문화는 상실 서사뿐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부분, 또한 강화된 감각과 인지 체험, 새로운 관계들을 서술한다.

“제 생각에 아버지는 자신을 과소평가하세요.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흔히 말하는 능력은 아닐지 몰라도 아버지에게는 아직 많은 것이 남아 있어요.”

“그래, 그래, 예전엔 나도 가끔 뭔가를 만들었지. 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말이야. 하지만 이제는 그럴 기운이 없어. 그래도 상관없어. 내가 실망하거나 기분이 상하면, 너희에게 도와줄 거냐고 물어보마. 하지만 지금은 아주 만족스러워. 예전에 나도 가진 게 많았는데, 지금은 — 벌써 오래 되었는데 — 다 사라지고 없지 싶어. 내 행동이나 능력은 꽤 오래전부터 내리막길이야. 나는 어린 나이에 조숙했었지. 그때 벌써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지. 솔직히 이제는 아무 것도 못해. — 아무것도 — 아무것도 뭘 해도 다 어긋나. 하지만 많은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전혀 불행하지는 않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인 게야. 다른 사람들이 잘하면 같이 기뻐해줄 수는 있어. 하지만 내 태업은 빠져 버린 것 같아.”³²⁾

이 소설은 치매를 몰락의 길에 들어선 병자로서만이 아니라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가족의 일부분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많은 독자들에게 치매에 대한 공포를 없애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또한 주목할 만한 독일어권 작품으로 막스 프리쉬의 『인류는 백악기에 나타났다』(*Der Mensch erscheint in Holozän*, 1981)를 들 수 있다. 가이거의 소설이 대중소설의 성격을 띠는 것과 달리, 이 소설은 형식이나 내용으로 볼 때보다 본격적인 작가소설로 볼 수 있다. 이 작품 역시 치매인의 외면적 변화뿐 아니라 내면적 변화를 환자 스스로의 생각이나 발화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주로 한 줄로 된 내적 독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독백은 3인칭 서술 속에 짙짙하게 같이 들어있으며 소설

32) Arno Geiger (2011), pp. 157-158.

의 관찰적 흐름과 병행되거나 흐름을 단절시키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점점 줄어들면서 병의 악화를 보여준다. 또한 소설은 주인공의 메모나 수집한 쪽지들, 책의 일부분을 시각적으로 표시나게 보여주어 모자이크나 패치워크 같은 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전통 소설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서술자 위주의 통례적인 소설 진행과 대비를 이루어 주인공의 상태 변화를 독자에게 인지시킨다. 이 작품은 영미권에서는 프리쉬의 최고작이라 평가받고 있다.

주인공 가이저는 아내의 사망 이후로 도시를 떠나 스위스의 깊은 산속에서 홀로 살아간다. 그는 자신의 병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그 진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한다.³³⁾ 그러나 그의 노력은 점차 심해지는 증상과 더불어 헛수고로 돌아간다. 이 소설은 근본적으로 3중 ‘재난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산사태라는 자연 재난이 서술되고, 다음으로 문명사회와 연결이 끊기면서 집안의 문명 기기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2차적 문명재난이 일어난다. 가장 큰 재난은 바로 주인공의 머리속에서 일어나는 망각과 이해 및 대처 능력의 상실이라는 재난이다. 소설이 진행되면서 주인공에게 과거는 망각되고 드물게만 점점이 현현할 뿐이고 주인공은 “지금, 여기”의 현실과도 버거운 대결을 펼치다가 결국 계단참이 무너지면서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 가는 것으로 끝이 난다.

4. 치매와 소설의 담론

독일에서도 아직까지 치매소설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으며 최근에 베더와 크뤼거가 최근에 나온 많은 치매소설들의 구조를 분류

33) Yun-Young Choi (2018). 2장 참조. 최윤영은 주인공의 치매에 대한 태도와 서술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가이저의 소설을 ‘가족적-화해적’ 소설로, 프리쉬의 소설을 ‘저항 서사’로 대조시킨다.

해 유형학을 시도한 바 있다.³⁴⁾ 이 장에서는 치매소설이 역사적인 문학 매체로서의 소설의 기본 형식과 그 바탕에 놓인 전제 조건들에게 어떠한 도전을 가하는지, 또한 그 담론에 어떠한 수정과 변화를 요구하는지를 살펴본다. 치매를 삶의 ‘다른’ 그러나 가능한 존재형식으로 볼 때 ‘다른’ 삶을 기록하는 소설 역시 어떤 변화를 보이느냐가 중심질문이다.

4.1. 소설과 기억, 그리고 망각

현재의 뇌 과학자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게 문학작품들은 인간됨과 개인의 개(체)성을 자주 그의 기억과 결부시킨다. 이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 정체성의 바탕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때 기억은 의식 뿐 아니라 무의식적 기억 그리고 몸에 체화된 기억까지 다양한 양태로 표현된다. 마르셀 푸르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주인공이 먹게 되는 마들렌은 그 맛이 입안에 퍼지는 동안 예기치 않게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끌어 나온 과거에 대한 기억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유년시절을 다시 소설의 현재 속으로 전경화시키고 연대기적 시간에 주인공의 주관적 시간을 병치시켜 결국 정체성을 이루는 풍성한 바탕이 된다. 다른 한편 이러한 기억은 공동체에도 해당되는데 리퀴르의 현상학이 말하는 것처럼 삶과 기억 그리고 글쓰기와 정체성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치매인을 다루는 소설들은 이와 반대로 망각에 보다 큰 방점을 두어 서술한다. 또한 이를 겪는 인물의 실망, 절망, 공포, 두려움을 다루면서 동시에 그 가운데에서도 지속되는 삶을 다루고 있다. 이때 많은 소

34) Ulrike Vedder (2012), pp. 274-289; Irmela Marei Krüger-Fürhoff (2015), “Narrating the limits of narration: Alzheimer’s disease in contemporary literary text”, Swinnen, Aagje et al.(Hg.)(2015); Popularizing Dementia. Public Expressions and Representations of Forgetfulness, Bielefeld: Trankskript, pp. 89-108 참조.

설들은 치매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이나 진단이 내려지는 순간을 하나의 공포와 두려움의 ‘문턱’으로 서술한다. 『스틸 앨리스』에서는 규칙적이고 계획된 일상생활(조깅)에 예기치 않게 닥쳐온 혼란, 지리적 방향감각 상실의 혼란을 다음처럼 묘사한다.

하버드 광장은 지난 25년 동안 그녀가 늘 지나다닌 곳이었건만 어떤 일인지 거기서부터 그녀의 집까지 가는 지도가 머리에 그려질 않았다. 바로 앞에 지하철역 출구를 나타내는 흑백의 둥근 ‘T’ 표지가 있었지만 하버드 광장에는 그런 출구가 셋이나 되었고 앨리스는 앞에 있는 출구가 셋 중 어느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앨리스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진땀도 났다. 심박수 증가와 발한이 달리기 때 따른 적절한 반응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³⁵⁾

앨리스는 의사에게서 알츠하이머로 인한 조발성 치매라는 진단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쇼크를 겪는다. 그렇지만 위의 장면은 평온한 일상에서 느닷없이 예고 없이 위기로 닥친 공간적 방향 상실이었기 때문에 주인공에게는 보다 더 근본적인 낯섬과 두려움의 순간으로 체험된다. 화자이자 주인공 앨리스는 점차 인지 능력과 언어 능력을 상실하고 더불어 자신에게 익숙했던 세계인 학교와 가정에서 점점 배제되는 고통을 바로 ‘나’의 체험으로 주관적이며 감정적으로 생생하게 전달한다. “앨리스는 자신이 퇴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이 치매의 구멍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는 게 느껴졌다. 혼자서.”³⁶⁾

또한 주목할 점은 이 소설은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의 변화 과정 가운데 새롭게 부각되는 다른 능력, 다른 의사소통방식을 부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의사들도 주목하는 이러한 치매인의 독특한 능

35) 리사 제노바(2007), p. 35.

36) 리사 제노바(2007), p. 303.

력과 소통 방식은 전체 질병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용성이나 시기가 제한적이지만 대안 서사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³⁷⁾

엘리스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복잡한 대화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말이 아닌 것, 즉 몸짓이나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은 더 예리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2주 전쯤 리디아에게 그런 현상에 대해 설명했는데 리디아는 그제 배우들이 부러워하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배우들이 서로의 행동과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말과 언어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³⁸⁾

4.2. 치매와 근대적 개인

소설의 기원은 배경이 되는 ‘근대적 개인’의 탄생과 결부시켜 바라보는 이론들이 많다. 루콥스키의 경우도 중세 후기 소설에 나타나는 단초들을 통해 개인을 소설의 탄생과 연결시킨다.³⁹⁾ 그는 중세라는 큰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세계관이 운명 속에서 통합되어 인물에게 주어졌던 연결망에서 개인이 후기 중세부터 서서히 분리되어 나오는 계기를 소설의 탄생으로 보았다. 또한 이러한 독자적 존재가 중세의 운명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을 개인의 특징으로 꼽았다. 루카치 역시 유명한 문장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가야 하는 개인의 해방과 방향에서 소설의 시작을 보고 있다.

37) 이러한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는데 현재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치매의 진행이 점점 지연됨으로써 이러한 기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38) 리사 제노바(2007), p. 241-242.

39) 이에 대해서는 최윤영(1996), 「소설과 개인: 루콥스키의 이론을 중심으로」, 『괴테 연구』 8, pp. 256-273 참조.

근대 소설의 효시로 불리우는 『로빈슨 크루소』는 이러한 근대적 개인을 표본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루소가 『에밀』에서 ‘고립된 인간’과 교육 개념을 결부지어 이 소설에 대해 내린 긍정적 평가는 시사적이다.⁴⁰⁾ 크루소는 거대한 자연환경 속에 홀로 던져지게 되고, 작가는 그가 무인도에 도착해 28년간 자신의 시민적, 문화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려간다. 이 과정은 동시에 인류의 문화적 기억을 한 개인이 무인도에서 다시 복습하고 현실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는 ‘문화 Kultur’라는 개념이 라틴어의 농경, 즉 다시 말해서 ‘경작하다’(cultura)에서 온 것을 일깨우듯 ‘호모 파베르’(homo faber)로서 연장을 가지고 무인도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수렵을 하며 인류의 문화사, 문명사를 반복한다. 또한 그는 수확물을 저장하고 자신이 거처할 집과 탈출용 배를 건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프라이데이라는 종까지 거느리게 된다. 그는 인류의 경험을 이용하여 과거를 저장하고 미래를 예비함으로써 현재를 풍성하고 통찰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크루소는 자연을 이성으로 제압하고 이용하는 근대적 인간의 전형이며 이러한 근대 의식은 아래의 인용에서 보듯 크루소의 자의식에서도 나타난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였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이성이 수학의 실체이자 기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성에 의거해 가늠하고 맞춰서 만사를 가장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누구건 온갖 물건의 제조법을 시간이 지나면 다 숙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도구를 만져본 적이 없었으나 열심히 일하고, 응용을 하며 고안을 해본 끝에 마침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특히 연장만 갖고 있다면 만들어가질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⁴¹⁾

40) “그처럼 고립된 상황에 자신을 놓아보는 일은 필요하다. 그때 우리는 편견을 극복할 수 있으며 사물의 진정한 관계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장 자크 루소 (1997), 『에밀』, 이환 역, 서울: 돌출새김, p. 100.

프리쉬의 소설 『인류는 백악기에 나타났다』 역시 거대한 자연 속에 내던져진 외로운 존재로서의 주인공을 묘사한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의 그의 개인적 존재는 크루소와 반대로 문명의 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주변의 문명적 환경 속에서 관계를 잃어간다. 스위스 산간 마을은 폭풍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고 전화와 전기가 끊긴다. 냉장고의 음식들이 상하고 불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으며 도시의 딸에게도 전화를 걸 수 없게 된다. 가이저는 마을 안에서도 차츰 고립되어 가고 자연과 문명의 재난에 대해서도 치매로 인하여 적절히 이성적으로 파악하거나 대처하지 못한다. 치매의 악화와 더불어 그는 지식, 기억, 그리고 판단 능력을 점차 상실하는데 그가 의지하고자 했던 신문과 책, 백과사전 속의 인류의 지식들은 그의 뇌와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바닥에 뒹구는 쪽지처럼 쓸모가 없어진다. 그는 문명의 다양한 산물을 집 안에 갖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어능력을 상실하며 문명에서 단절된다.

가이저가 오후 한 가운데에 왜 자기가 초가 필요한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또한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그가 문서를 봉인하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다. 프라이팬을 찾고 있는 동안에 서랍 안을 한번 정리해 두자라는 것이 그의 의도였다. 작은 프라이팬은 이미 화로 위에 있었다. 화로의 불이 세지 않은데도 물이 보글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가이저는 자기가 서랍의 무질서에 대해 생각을 하는 동안에 자기가 벌써 차를 다 마셔 버렸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빈 잔은 따뜻했고 티백은 어둡고 축축했다.⁴²⁾

인간의 행위와 의도 그리고 이와 결부된 시간, 장소, 도구, 사물들의 관계들은 서로 연관성을 상실하며 토막토막 잘려져 단속적으로만 의식

41) 대니얼 드포(2013), 『로빈슨 크루소』, 윤혜준 역, 서울: 을유문화사, p. 100.

42) Max Frisch (1981). Der Mensch erscheint in Holozän, Frankfurt a.M.: Suhrkamp, p. 76.

적으로 접촉되고 연결된다. 서랍을 정리하고 초를 찾아 촛농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문서를 봉인해두자는 것이 하나의 행위 연관이라면, 부엌의 화로에 프라이팬을 얹어 물을 끓여 차를 마시겠다는 것은 또 다른 행위연관이다. 그러나 각각의 행위와 의식 사이의 연결이 부분부분 끊기면서 또한 시간과 공간의 연관도 서로 끊기며 주인공은 사물과 세상에 대하여 속수무책으로 서 있다. 크루소와 달리 과거-현재-미래의 연결망이 점차 끊기고 더불어 주인공은 시간-장소-기억-의도의 사슬을 해독하지 못하고 질서의 세계에서 혼란과 무질서의 세계로 들어간다.

자신이 속한 세계 내에서의 시간적, 공간적 정향성의 상실 현상은 치매소설들에서는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모티브이다. 이는 보다 큰 맥락에서 ‘고향 상실’로 연결되면서 궁극적으로 존재와 세계소속감의 의미를 재성찰하게 만든다. 17세에 전쟁에 끌려나갔다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귀향한 후 “평생 두 번 다시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한 아버지인데도 자기 집안에서 “거의 매일같이 집에 가고 싶은 상황이 되었다.”⁴³⁾ 고향의 의미를 “근원적 삶의 공간”으로 실존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경우, 고향 상실은 바로 감정적인 유대와 공동체 의식, 그리고 자기 동질성, 존재와 삶의 근원을 상실함을 의미한다.⁴⁴⁾

아버지는 변했다. 그 침울한 표정은 망각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온 세상이 낯설어진 사람의 빠져린 고향 상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단순히 장소만 옮겨서는 이 고향 상실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면서 종종 며칠씩 무기력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다.⁴⁵⁾

고향 상실은 “장소가 아니라 병”⁴⁶⁾으로서 발터 옌스에게도 마찬가지로

43) Arno Geiger (2011), p. 45.

44) 전광식(1993), 『고향』, 서울: 문학과 지성사, p. 19.

45) Arno Geiger (2011), p. 55.

로 서술된다. 인간 서사의 근본이 『오디세이아』에서처럼 집을 떠나 모험을 떠나고 귀향하는 것이라면 또한 이 긴 여행이 그의 서술적 정체성의 내용이라면, 이제 자기 집 속에서 고향을 잃어버리는 것이 모험의 주 내용이 되어 치매의 근본 서사가 된다. 홀로 있는 인간은 자유가 아니라 위험과 위기 속에서 묘사된다. 서사적 정체성은 헤겔식으로 세계와의 화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의 개인의 고립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종결된다.

4.3. 교양소설과 치매소설

치매소설은 특히 여러 관점에서 교양소설과 대비가 되고 있다. 교양소설은 인간과 삶 그리고 소설의 관계를 ‘시간’과 ‘발전’, ‘완성’의 범주를 통해 다룬다. 교양소설의 주인공이 ‘젊은이’로서 우정, 사랑, 투쟁이라는 삶의 학교를 거쳐 가면서 많은 경험과 체험을 축적해나가면서 삶과 인격을 완성해 나간다는 특유의 ‘서술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삶의 오류로부터 진리로, 혼돈으로부터 선명함으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정신으로” 성장하는 삶의 학교가 바로 교양소설이 그리는 삶인 것이다.⁴⁶⁾ 특히 교양소설 장르의 딜타이의 정신사적 영향 아래서 있고 교양을 둘러싼 이상주의적 인간관, 사회관, 세계관이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흔히 ‘독일적 장르’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념적 배경이 없더라도 대부분의 나라에는 ‘성장소설’, ‘교육소설’, ‘발전소설’ 등 유사한 형태의 소설 장르가 있으며 모두 청춘기에서 시작하여 성인, 혹은 장년으로 진행되는 특정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교양 역시 기억의 문제와 연결 지을 수 있다. 지식과 체험의 축적을 통한 교육의 개념은

46) Arno Geiger (2011), p. 57.

47) Werner Kohlschmidt et al. (ed.)(1958), Reallexikon der deutschen Literaturgeschichte, Bd. 1, Berlin: Walter de Gruyter, p. 176.

지식과 체험의 기억과 저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치매소설은 이러한 전통적인 교양소설의 근본이념과의 반대극에 서 있다. 오한진은 교양소설이 삶의 전체를 투영한다고 지적한다.⁴⁸⁾ 치매소설은 그러나 이러한 교양소설이 상정하는 삶의 전체를 시간적으로 연장하고 제4의 노년기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절정을 지난 그 이후 시기를 묘사한다는 점에서, 또한 쇠퇴와 와해를 포함한 진행 과정을 서술한다는 점에서 치매소설의 방향성은 반대라 할 수 있다. 유기체의 비유를 사용한다면 교양소설은 청년이 성인으로, 혹은 장년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다룬다면 치매소설은 정점인 장년에서 노년으로, 죽음으로 이르는 길을 다룬다. 서술에 있어서 교양소설이 경험과 체험의 축적을 통한 ‘형성’(Bildung), ‘완성’(Vollendung)을 주 내용으로 다룬다면 치매 서술은 경험과 기억의 점차적 상실을 주된 소재로 다루고 그 결과 한 개인의 정체성의 ‘퇴보’(Rückgang)와 ‘외해’(Auflösung)를 문제시하고 있다.

제노바의 경우 흔치 않은 1인칭 여성소설로서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주인공의 내적인 불안과 혼란을 서술한다. 또한 50세의 미국 명문대 신경언어학자로 설정되어 치매현상을 이해하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환자로서의 자신을 이성적으로 관찰하면서 진단과 분석을 내리게 하고 있다.

엘리스는 마음이 불안했고 자신이 퇴화하고 있음을, 과거가 현재에서 분리되고 있음을 고통스럽게 인식했다. 그런데도 만나 옆에 앉은 남자가 안나의 남편 찰리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건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 찰리는 가족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엘리스는 알츠하이머병이 악마가 자신의 뇌에서 ‘현재의 리디아’와 ‘과거의 리디아’ 사이의 연결망을 끊어놓고 ‘찰리’ 관련 연결망은 그대로 두는 식으로 비논리적인 파괴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⁴⁹⁾

48) 오한진(1989), 『독일 교양소설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 p. 27.

위의 인용 부분은 서사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분석가 ‘내’가 환자 ‘나’의 상태를 판단하는 부분으로 내적 독백 등을 활용하지 않고 체험과 관찰, 분석을 하나로 통합하여 서술한다. 전문가 ‘나’는 환자 ‘나’의 불완전하고 불균형적인 인지 속에서 ‘나’의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해석하는데 뇌의 연결망이 단절되고 과거와 현재의 연결이 파괴되는 전형적인 치매 현상으로 분석하며 서술한다. 이때의 고통은 환자와 분석가 ‘나’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4.4. 병리학 서사와 치매 서사

치매도 최근의 뇌과학 연구에서처럼 일종의 질병이라고 보면 치매 서사는 ‘병리학 서사’와의 근친성을 지닌다. 소설 속에 나타난 질병이나 병리학 혹은 환자 서사는 그 자체로서도 의미를 지니지만 이제까지는 주로 시대나 사회와의 연관 속에서 상징이나 은유로 많이 다루어졌다.⁵⁰⁾ 즉 질풍노도기의 렌츠 같은 인물, 혹은 세기전환기의 에피 브리스트처럼 신경증을 앓는 인물들이 이러한 범주에서 다루어졌다. 이들의 질병이나 고통, 광기 등은 개인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능력과 소망, 욕망을 수용하지 않는, 출구 없는 시대나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도 읽혔던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괴테의 『젊은 베르터의 고통』일 것이다. 베르터의 심신 상태의 악화는 사랑과 관련된 그의 개인적 상황의 악화 때문으로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시민계급의 대표로서 당대의 귀족사회에 대한 염증, 좌절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뷔히너의 보이첵이나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의 비버코프도 사회의 정상적인 시민과 대조되는, 출신

49) 리사 제노바(2007), p. 281.

50) 이에 대한 분석으로는 예를 들어 김길웅(2001), 「이상과 현실, 그리고 우울 — 18세기말과 19세기초 독일 시민계층의 내면세계와 그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멜랑콜리, 『독일문학』 79, pp. 282-308을 들 수 있다.

계급의 상황으로 인하여 사회와 사회질서에 적응하지 못한 정신병자이자, 비정상인들이며 국외자들이다. 이러한 병리학 서사는 그 ‘다름’과 ‘차이’로 인하여 병자를 사회의 타자로 규정하는 이야기이며 푸코가 지적한 것처럼 정상과 비정상 사이의 포섭과 배제의 체계 속에서 그려진다. 현대의 치매도 이러한 정상성 이데올로기와 권력, 지식, 폭력의 관계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치매도 문화적으로 구성된 비정상적 몸과 정신이 정상성에서 배제되어 국가 보건체계의 관리를 받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 서사의 기능이다. 병리학 서사는 치유를 기술할 뿐만 아니라 종종 글쓰기 자체가 치유의 기능을 하고 있다. 베르터의 작가 괴테 스스로도 고백하듯 글을 쓰면서 자신은 “폭풍우처럼 격렬한 경지에서 구제되”게 된다.⁵¹⁾ 그러나 치매소설에서는 병의 성격상 치유의 과정을 묘사하지도 않고 또한 작가 스스로 자신에 대한 글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⁵²⁾ 일반 질병 서사와 달리 당사자들은 기억의 점차적 상실로 말미암아 자신의 변화를 끝까지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병리학 서사와 치매 서사가 가장 큰 차별성을 보이는 것은 후자가 자아 정체성의 본질적 문제를 던진다는 데에 있다. 일반적인 질병 서사는 투쟁할 상대가 병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치매에 대항해서는 강력하게 싸울 무기가 없을 뿐 아니라 알아볼 수 없는 그의 정체성 때문에 “암 환자는 주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는 추방자”가 된다.⁵³⁾ 무엇보다도 환자 스스로가 “난 언제부터 내가 아니게 될까?”⁵⁴⁾라

51) 괴테, 시와 진실, 정현규(2010), 「가장 인간적인, 하지만 사회적인」, 『젊은 베르터의 고통』, 서울: 을유문화사, p. 212에서 재인용.

52) 국내에서 드물게 장기 연구를 통하여 질병체험 이야기 시리즈를 6권까지 출간되었는데 이 중 치매 환자의 서사의 특징은 유일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서술하지 않아 다른 시리즈들이 해당 병을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갖는데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는 데 있다. 질병체험이야기연구팀(2015), 『치매와 함께하는 사람들』 외, 한빛미디어 참조.

는 개인성, 고유성,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고통스럽게 던지고 있고 이는 치매인을 관찰하는 부부와 가족, 그리고 주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이다. 『스틸 앨리스』의 주인공이 후일에 닳칠 상태에 대해 미리 작성해놓는 자신을 향한 질문지는 현재의 시간적, 공간적 위치와 생일과 자녀의 수에 대한 인식 등을 묻고 있는데 동시에 이것은 치매로 인하여 그녀가 앞으로 상실하게 될 것에 대한 목록이기도 하다. 즉 자신을 구성하는 인간으로서의 현상적 존재 토대를 잃는 것이다. 일반적인 질병들과 달리 치매는 아직 치유불가능성 속에서 인식되고 있고 문학도 그의 삶을 요양(병원)시설로 옮기는 것으로 끝나거나 주인공 없는 텅 빈 풍경으로 끝맺는다. 자아 없는 풍경인 것이다.

5. 결론

“이것이 치매다. 아니면 이것이 삶이라고, 삶을 만드는 재료라고 말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⁵⁵⁾

문학은 인간의 삶을 그린다는 매체의 특성상 치매인을 개인으로, 인격체로, 또한 전 생애에 걸쳐 주관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문학은 치매인을 환자로만, 혹은 인지와 기억 능력을 상실한 ‘빈 껍데기’로, ‘살아있는 주검’으로 혹은 가정과 사회에서 격리 치료해야 할 비정상인으로서가 아니라, 치매 상황 속의 개인을 그의 통시적, 공시적 삶 속에서 전일주의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삶을

53) 리사 제노바(2007), pp. 168-169. 아직까지 치매는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쾌가 어려운 병이고 진행을 지연시키는 정도의 치료만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54) 리사 제노바(2007), p. 354.

55) Arno Geiger (2011), p. 55.

살아가고 있는 인간으로 서술한다. 치매는 인간 노년 삶의 가능한 실존 조건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치매인을 서술하는 치매소설은 근대 소설의 기본 토대였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근대적 개인 개념의 수정을 요구한다. 교양소설처럼 개인의 완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점차적인 개인의 변화와 와해, 소멸도 다룰 것을 요구하며 더불어 개인과 인성 개념을 제고할 것을 요구한다. 치매인들의 삶, 몸, 관계, 사랑, 소통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 속에 서술하며 이제까지의 소설 장르의 기본 가정이었던 서술적 정체성을 역방향에서 그려내는 것이다. 치매소설들은 변두리로 밀려나 타자화된 이러한 치매인들을 문학적 주체로 서술하고 기억과 망각의 문제를 인간 삶의 서사로 논의하고 있다. 또한 치매인을 다루는 문학들은 이 현상을 삶의 담론, 가족 담론, 총체 담론, 관계 담론 속에서 제시하여 나름의 유형학을 만들어간다. 이러한 문학적 담론분석은 궁극적으로 노령사회의 치매 서사가 뇌중심의 기능주의나 생물학주의로 축소되거나 더 나아가 의료자본주의의 계토에서 전개되는데 저항하고 문학 연구가 다시금 본령인 휴머니티와 미학, 윤리학과 접맥하게 만든다.

참고문헌

【자 료】

- 가이거, 아르노(2011), 『유배중인 나의 왕』, 서울: 문학동네.
제노바, 리사(2007), 『스틸 앨리스』, 민승남 역, 서울: 세계사.
Jens, Tilman (2009), Demenz, München: Güterslocher Verlagshaus.
Frisch, Max (1981), Der Mensch erscheint in Holozän, Frankfurt a. M.: Suhrkamp.
Geiger, Arno (2011), Der alte König in seinem Exil, München: dtv.
Genova, Lisa (2009), Still Alice. Mein Leben ohne Gestern, Köln 2009.

【논 저】

- 겐, 오가(2013), 『치매노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안상현 역, 서울: 윤출판.
김기홍(2014), 「망각의 병리화와 의료화현상」, 이진우·김민정(2014), 『호모 메모리스』, 서울: 책세상.
김길웅(2001), 「이상과 현실, 그리고 우울 — 18세기말과 19세기초 독일 시민 계층의 내면세계와 그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멜랑콜리」, 『독일문학』 79.
김선하(2007), 『리콤피르의 주체와 이야기』,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김윤정(2015), 「박완서 노년소설에 나타나는 질병의 의미」, 『한국문학논총』 72.
니체, 프리드리히(2005), 「삶에 대한 역사의 공과」, 『니체 전집2』, 서울: 책세상.
드포, 대니얼(2013), 『로빈슨 크루소』, 윤혜준 역, 서울: 을유문화사.
루소, 장 자크(1997), 『에밀』, 이환 역, 서울: 돌출새김.
리콤피르, 폴(2015), 『시간과 이야기 3』, 김한식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오한진(1989), 『독일 교양소설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
이스쿠이에르두, 이반(2015). 『망각의 기술』, 김영선 역, 서울: 푸른 숲.
이진우·김민정(2014), 『호모 메모리스』, 서울: 책세상.
전광식(1993), 『고향』, 서울: 문학과 지성사.
전홍남(2011), 『한국 현대 노년소설연구』, 서울: 집문당.
_____(2010), 「박완서 노년소설의 시학과 문학적 함의」, 『國語文學』 49.
정현규(2010), 「가장 인간적인, 하지만 사회적인」, 『젊은 베르터의 고통』, 서울:

을유문화사.

- 질병체험이야기연구팀(2015), 『치매와 함께하는 사람들』 외, 한빛 미디어.
- 천선영(2001), 「노망과 치매 사이. 치매에 대한 담론형성. 확산과정의 사회학적 함의」, 한국 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 6.
- 최윤영(1996), 「소설과 개인: 루콥스키의 이론을 중심으로」, 『괴테연구』 8.
- 테인, 팻(2012), 『노년의 역사』, 안병직 역, 서울: 글항아리.
- 홍사현(2015). 「망각으로부터의 기억의 발생. 니체의 기억 개념 연구」, 『철학논집』 42.
- Gronemeyer, Reimer (2013): Das vierte Lebensalter. Demenz ist keine Krankheit, München: Pattloch.
- Klein, Christian (2011), “Erzählen und personale Identität”, Martinez, Wolfgang (Hg.)(2011), Handbuch Erzählliteratur, Stuttgart: Metzler.
- Kohlschmidt, Werner et al. (ed.)(1958), Reallexikon der deutschen Literaturgeschichte, Bd.1, Berlin: Walter de Gruyter.
- Krüger-Fürhoff, Irmela Marei (2015), “Narrating the limits of narration: Alzheimer’s disease in contemporary literary text”, Swinnen, Aagje et al. (Hg.)(2015), Popularizing Dementia. Public Expressions and Representations of Forgetfulness, Bielefeld: Transkript.
- Vedder, Ulrike (2012), “Erzählen vom Zerfall: Alzheimer und Demenz in der Gegenwartsliteratur”, Zeitschrift für Germanistik, 22 H. 2.
- Yun-Young Choi (2018), “Demenz als Lebensnarrativ”, Tagungsband der Asiatischen Germanistentagung, Frankfurt a.M.: Peter Lang (to be appear).
- http://www.berlinerliteraturkritik.de/detailseite/artikel/jens-buch-literarischer-vatermord.html?tx_ttnews%5BbackPid%5D=34&cHash=d4230bfd13.

원고 접수일: 2018년 4월 8일

심사 완료일: 2018년 4월 27일

게재 확정일: 2018년 5월 2일

ZUSAMMENFASSUNG

Krise des Modernen Individuums und Narrative Identität
in den Demenzromanen

Choi, Yun-Young*

In jüngster Zeit werden in Romanen immer häufiger Demenzkranke beobachtet und thematisiert. Anders als in den Wissenschaften wird in der Literatur der Demenzkranke häufig nicht nur in seiner Krankheitsphase, sondern in allen seinen Lebensphasen und in den Beziehungen zu seiner Umwelt holistisch behandelt. Ebenfalls ist es für die Literatur kennzeichnend, dass bei ihr die Demenz von den Betroffenen subjektiv und individuell beschrieben wird, und zwar im Helgelschen Sinne vermittelnd.

Als Textbeispiel wird zuerst *Demenz* (2009) von Till Jens analysiert; ein Text, der in Form einer Biographie eine individuelle Demenz-Geschichte mit den historischen und gesellschaftlichen Dimensionen verbindet, als sich die Erkrankung von Walter Jens simultan mit der Entdeckung seiner NS-Vergangenheit ereignet. Die Romane *Der alte König in seinem Exil* (2011), *Der Mensch erscheint in Holozän* (1981) und *Still Alice* (2009) sind fiktionale Exemplare für narrative Identität, die mit der Demenznarrative die traditionelle Gattungskonzepte des Romans modifizieren: Geigers Roman *Der alte König in seinem Exil* legt den

* Professor, 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werpunkt auf das Verstehen des Demenzkranken, bei der der Sohn mittels einer Niederschrift das gesamte Leben seines Vaters verfolgt und es rekonstruiert. In Frischs Roman *Der alte König in seinem Exil* wird die Erkrankung als Katastrophennarrative beschrieben, wobei die menschliche Katastrophe mit natürlichen und zivilisatorischen Katastrophen einhergeht. Genovas Roman *Still Alice* beschreibt in der ersten Person und in doppelter Perspektive einer Demenzkranken und Fachspezialistin die Veränderung des Lebens und des Ichs.

Der Demenzroman fordert in Bezug auf traditionelle Diskurse der Romangattung zu mehreren kardinale Korrekturen auf. Zuerst wird das Vergessen als Modus der möglichen menschlichen Existenz im Alter nicht nur von außen, sondern auch von innen beleuchtet, und zwar im aktiven Sinne. Zweitens beschreibt der Demenzroman das Alleinsein des modernen Individuums, das als Befreiung von den früheren sozialen Bindungen gepriesen wurde, in seiner Gefahr und Krise. Drittens verlängert der Demenzroman die zeitliche Darstellungsgrenze des Bildungsromans in die Altersphase, in der sich die Persönlichkeit eines Individuums auflöst, und untermauert das idealistische Konzept der Entwicklung und die Idee der Vollendung eines Menschen. Insofern kann der Demenzroman als grundlegende Infragestellung des emphatischen Konzeptes des modernen Individuums und der Gattung des Romans angesehen werden.

